

## 世界大恐慌 以後 日本戰時經濟의 展開

徐廷翼

---

이 연구는 1929년 말에 시작된 세계대공황 이후 日本戰時經濟의 전개과정을 重化學工業化와 經濟統制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滿州事變과 金輸出再禁止로 공황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일본경제는 급격히 증가한 군수를 배경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중화학공업화는 정상적인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軍需生産의 극대화를 위해 경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物價統制·物資統制 그리고 賃金과 企業利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이루어졌다.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일본자본주의의 특징인 對外依存性은 극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증대되었다. 그 때문에 外貨不足, 原料의 供給難 등은 戰時統制經濟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일본의 戰時經濟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다.

---

### I. 序 論

1930년대의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불황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한 이후 산업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정치적으로는 軍部の 세력이 대두하여 파멸적인 전쟁의 길로 나아간 시대였다. 이 시기의 일본은 「滿州國」의 승인과 國際聯盟脫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시적인 국제적 고립은 있었지만, 1934·1935년에는 英美와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1935·1936년의 危機」를 외치면서 군비확장을 주장하는 군부와 이에 대항하여 英美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원로정치인들의 세력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6년 2·26사건 이후 정치세력간의 균형은 파괴되고 육군에 대항하는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경제안정을 위해 억제되어 왔던 증세와 대규모의 군비확장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高橋財政의 적극적 공황탈출정책과 滿州事變으로 인한 경기상승은 1930년대 일

본의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時局匡救事業에 의하여 농촌과 지방의 경기가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광공업생산의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일본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경제구조상 최대의 변화는 이 시기에 重化學工業化가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1919년에서 1936년 사이에 중화학공업 부문의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1936년 2·26 사건 이후 급격한 軍事經濟化에 의해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건후에 성립한 廣田內閣의 馬場鐵一藏相은 군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육군의 '國防充實12個年計劃', 해군의 '第3次補充計劃'의 예산을 1937년부터 計上할 것을 약속하고 大増稅와 공채발행을 재원으로 하는 거대예산을 발표하였다. 재정팽창으로 1936년 말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국제수지는 균형을 상실하고 물가는 폭등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경제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 하였던 국내외적 제조조건이 소멸되어 갔는데 이는 곧 戰時統制와 計劃化로의 길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1930년대는 '恐慌에서 戰爭으로의 10년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대공황이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과 공황에서 벗어난 이후 전개된 중화학공업의 내용 그리고 1937년 中日戰爭 이후 통제경제의 본격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한다.

## II. 世界大恐慌과 日本經濟

1929년 미국의 주식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일본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본은 제1차대전 이후 오랜 동안의 현안이었던 金本位制復歸(金輸出解禁)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금해금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대세는 금해금결행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 저해요인으로 미국과 영국의 高金利만이 관심을 끌고 있었다. 즉, 일본보다 금리가 높으면 미국과 영국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일본의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만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대공황의 영향으로 미국과 영국의 금리가 잇달아 인하되었기 때문에 금리하락의 측면만이 일본에게 부각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주식대폭락은 처음에는 오히려 일본의 금해금에 好材로 평가되고 그 배후에 있는 景氣反動의 중대성은 간과되고 있었다.

1930년 3월 이후 미국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던 生絲價格의 폭락을 시작으로 상품가격과 주식가격이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昭和恐慌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1931년 12월 금수출재금지에 이르는 약 2년간 비록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공황에서 일찍이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昭和恐慌은 전 산업부문 및 국민생활

〈표 1〉 昭和恐慌의 基本諸指標(1929~1935)

(1929年=100)

항 목	1929년(實數)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消費者物價(大川指數)	100	89.8	79.5	80.4	82.9	84.0	86.1	
價 格	쌀	1石28円92錢	87.4	63.5	72.8	73.7	89.8	102.3
	누에고치	10貫71円	43.7	42.3	49.3	74.6	35.2	63.4
	生絲(橫浜現物)	100斤1,315円	65.8	45.1	53.2	57.8	40.7	54.4
	綿絲(大阪現物)	300斤229円28錢	65.5	56.1	63.7	88.5	93.5	91.0
	鋼材(丸鋼16mm)	1톤94円	76.6	62.8	71.3	104.3	107.4	98.9
生 産 量	生絲	42,346톤	100.6	103.5	98.2	99.6	106.8	103.3
	綿絲	506,675톤	90.4	91.9	100.6	111.0	124.3	127.5
	銑鐵	108,7만톤	106.9	84.4	93.0	132.2	159.0	175.4
	粗鋼	229.4만톤	99.8	82.1	104.6	139.4	167.6	205.1
	石炭	3,425.8만톤	91.6	81.7	81.6	94.9	104.9	110.2
民營工場勞動者數(日銀指數)	100	90.0	87.3	82.0	89.9	100.2	109.7	
民營工場實質貸金(日銀指數)	100	95.0	62.7	84.8	85.9	87.8	87.8	
東京株價(東株指數)	100	61.7	79.6	78.6	113.1	138.0	126.3	
輸出額(円價)	2,149百萬円	68.4	53.4	65.6	86.6	101.1	116.3	
輸入額(円價)	2,216百萬円	69.8	55.8	64.6	86.5	103.0	111.6	

자료 : 安藤良雄 編 [8], p. 116, 日本銀行統計局 [13], p. 219.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sup>1)</sup> 특히 공업부문보다 농업에서의 공황은 오래 지속되고 농촌에 보다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주었다.

〈표 1〉은 공황의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체지표를 보여 주고 있다. 공황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중심적 지표는 株價와 物價의 폭락이다. 1930년 동경주가는 1929년에 비해 약 40% 가까이 하락하였다. 물가하락을 상품별로 보면 생사·면사·누에고치·쌀 등의 輸出關聯纖維商品과 농산물, 鋼材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硫安·시멘트·銅 등의 중화학공업제품이 크게 하락하였다.

일본경제에 가장 커다란 타격을 준 것은 貿易의 감소와 정체였다. 국제무역의 축소는 일본의 수출입액을 반감시켰다(수출 1929년 20억 엔 → 1931년 11억 엔, 수입 1929년 21억 엔 → 1931년 11억 엔). 19세기 말 이래 일본수출품의 大宗이었던 생사 수출의 감소는 곧바로 양잠업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농업공황은 누에가격의 하락으로 시작되어 쌀 가격, 더 나아가 농산물 전반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여 農家經濟를 해체위기에 빠뜨렸다. 연평균 농가소득은 1929년에 1,326엔이었던 것이 1931년에는 650엔으로 반이나 감소하였다. 그 결과는 농가부채의 증가였다. 1929년 말 長野縣 농촌의 부채총액은 1억 7,656만 4,288엔으로 한 마을당 부채는 46만

1) 中村隆英 [17], pp. 49~52.

4,643엔, 1호당 868엔이었다.<sup>2)</sup>

공황으로 사회불안은 고조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격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세력의 성장에 의해 발생된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軍部를 중심으로 하는 파시스트세력의 급속한 대두에 의해 초래된 것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사회불안은 滿州事變이라는 형태로 그 돌파구를 찾게 된다.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통하여 정상적인 자본주의경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만주사변의 발발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1931년 12월 13일 犬養毅內閣의 藏相에 기용된 高橋是清은 곧바로 금수출을 재금지하고 금본위제에서의 이탈을 단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도 마침내 管理通貨制를 채택하게 되었다.

금수출을 금지한 결과 円貨의 對外價値는 하락하기 시작하여 수출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對美換率은 1931년(평균) 1달러=2엔 5전 이었지만 1932년에는 3엔 56전, 1933년에는 3엔 97전으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1931년 이후 수출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수입초과의 폭도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당시에는 '1932~1935年期的 輸出大增進'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수출증가는 여전히 세계대공황의 타격으로 수요가 수축된 제외국 특히 일본제품의 압박을 가장 크게 받은 영국을 중심으로 '不當競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sup>3)</sup> 일본은 平價切下로 輸出價格을 낮춤으로써 수출수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는 있었지만, 이는 무역마찰을 가져와 국제적인 평가절하경쟁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공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또 하나의 정책은 정부 자신이 구매력을 창출하여 한편으로는 過剩生産物을 소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雇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는 군비확대로 軍需購入을 중대시키면서 과잉인구를 군인으로 흡수하는 한편 공공사업·실업대책사업의 확대, 농민·중소생산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확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과잉생산물의 소화, 고용증대, 소비수요의 확대를 도모하는 방법이었다.

일본의 재정지출은 1932년과 1933년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井上藏相시대의 一般會計歲出은 1929년에 17억 엔대였지만 1930년, 1931년에는 14~15억 엔대로 축소되었다. 그것이 高橋藏相시대가 되면 1932년에 19억 엔, 1933년에 23억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팽창요인 중 가장 큰 것은 군사비로서 井上財政하에서 4.5억 엔이었던 것이 高橋財政하에서는 1932년 6.9억 엔, 1933년 8.7억 엔, 1934년 9.4억 엔으로 증가하였다. 또 다른 팽창요인은 時局匡救事業費였다. 이는 농촌에서 토목사업을 일으키기 위

2) 猪瀬直樹 監修, 山崎博編 [15], pp. 68~69.

3) 有澤廣巳 監修, 安藤良雄 外編 [11], p. 138.

하여 高橋財政하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1932~1934년에 약 8억 엔이 소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日本銀行引受公債를 발행하여 충당하였다.<sup>4)</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군사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軍事需要와 民間需要가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 III. 軍需中心의 重化學工業化

1930년대의 產業構成을 보면 광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그 광공업 가운데에서도 重化學工業이 基軸産業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표 2〉에서 產業別純國內生産額의 推移를 보면 일본자본주의 성립기에 1위를 차지하였던 農林水産業은 그 비중이 계속 저하하여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商業서비스業에 1위의 자리를 양보하였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광공업 성장으로 농림수산업은 2위의 자리도 광공업에 빼앗기게 된다.

1930년대에는 상업서비스의 지위가 하락하고 광공업의 발전으로 양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 상업서비스의 縮小過程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1930년

〈표 2〉 產業別純國內生産의 推移

(단위 : 100만 엔, %)

연도	農林水産業	鑛工業	建設業	運輸·通信· 公益事業	商業 서비스業	純國內生産
1885	339(43.0)	86(10.9)	24(3.0)	18(2.3)	283(35.9)	789(100)
1890	496(46.1)	121(11.2)	36(3.3)	21(2.0)	350(32.5)	1,077(100)
1895	567(40.0)	193(13.9)	48(3.4)	39(2.8)	482(34.6)	1,392(100)
1900	858(37.7)	365(16.1)	97(4.3)	85(3.7)	772(35.9)	2,274(100)
1905	877(31.5)	477(19.1)	86(3.1)	144(5.2)	1,085(38.9)	2,787(100)
1910	1,119(30.8)	741(20.4)	157(4.3)	230(6.3)	1,201(33.1)	3,628(100)
1915	1,289(27.8)	1,130(24.4)	197(4.2)	343(7.4)	1,487(32.0)	4,640(100)
1920	4,036(29.5)	3,218(23.5)	669(4.9)	1,066(7.8)	4,374(32.0)	13,671(100)
1925	4,193(26.9)	3,187(20.1)	852(5.5)	1,583(10.2)	5,081(32.6)	15,575(100)
1930	2,163(16.6)	3,166(24.2)	727(5.6)	1,596(12.2)	4,659(35.7)	13,062(100)
1935	2,844(17.3)	4,765(29.0)	985(6.0)	1,607(9.8)	5,508(33.5)	16,432(100)
1940	6,527(18.3)	13,758(38.6)	2,661(6.9)	2,443(6.9)	9,275(26.0)	35,641(100)

자료 : 大川一司 [3], p. 202에서 작성.

4) 그 과정에 대해서는 拙稿 [20] 참조.

대 후반 전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군부에 의해 전시에는 不要不急한 부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실제로 통제의 영향으로 상품입수가 불가능하거나 영업조건을 상실한 업자들이 많았다. 게다가 병력으로서 또는 軍需産業의 노동력으로 군사체제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업자들이 폐업하였다. 그런데 상업서비스업은 이러한 中小企業·零細企業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체제가 강화되고 통제경제가 확장됨에 따라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상업서비스업의 축소는 전쟁경제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초래된 현상이었다. 상업서비스업의 축소는 곧 국민생활의 희생을 동반하는 전쟁경제의 등장을 의미하였다.

1930년대에는 광공업이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광공업에서 製造工業만을 추출하여 主要業種別 生産額의 變化를 본 것이 <표 3>이다.

<표 3>을 보면 1890년 이전에는 재래의 전통적 업종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食品工業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890년에는 일본산업혁명기에 급성장한 纖維工業이 식료품공업을 추월하고 있다. 섬유공업은 그 이후 비중을 저하시키면서도 1900년에서 30년간 평균 34%대를 유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섬유공업도 1920년대 후반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는 식료품공업과 함께 비중이 급속히 저하하여 1위의 자리는 鐵鋼·非鐵金屬·機械·化學으로 구성되는 중화학공

<표 3> 製造工業主要業種別生産額의 推移 (단위: 100만 엔, %)

연 도	食 料 品	纖 維	化學·鐵鋼· 非鐵·機械	合 計
1875	70,192(41.5)	38,976(23.1)	36,933(21.9)	168,950(100)
1880	114,760(34.7)	94,895(28.7)	77,396(23.4)	331,087(100)
1885	119,721(42.5)	82,124(29.1)	47,075(16.7)	282,027(100)
1890	156,085(36.0)	160,003(36.9)	73,362(16.7)	433,846(100)
1895	219,022(28.3)	370,674(47.9)	106,726(13.8)	774,169(100)
1900	429,065(36.3)	428,468(36.3)	191,351(16.2)	1,181,185(100)
1905	494,282(34.7)	458,808(32.3)	308,888(21.7)	1,420,689(100)
1910	707,623(34.1)	700,305(33.8)	434,357(21.0)	2,072,902(100)
1915	784,431(27.2)	955,129(33.2)	840,872(29.2)	2,880,303(100)
1920	2,285,882(23.9)	3,286,932(34.3)	3,202,739(33.4)	9,579,237(100)
1925	2,582,798(25.6)	3,974,725(39.4)	2,400,539(23.8)	10,100,434(100)
1930	2,206,441(25.0)	2,708,502(30.6)	2,895,912(32.8)	8,837,872(100)
1935	2,461,086(16.4)	4,355,625(29.1)	6,516,471(43.5)	14,967,873(100)
1940	4,057,730(12.2)	5,578,982(16.8)	19,568,571(58.8)	33,252,219(100)

자료: 篠原三代平 [6], pp. 140~143에서 작성.

업이 차지하게 되었다. 제1차대전기에 중화학공업은 생산액에서 섬유공업에 접근한 다음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의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섬유공업을 능가하여 급격히 그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1930년대 이래 純國內生産의 급증은 광공업 특히 중화학공업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1930년대 製造業의 生産構成을 보면 <표 4>와 같다. 구성변화의 특징은 생산의 중화학공업화가 급진전되었다는 점이다<sup>5)</sup> 생산의 중화학공업화율은 1929년의 32.2%에서 1936년에는 49.2%로 상승하고 民間兵器生産을 합하면 1936년에는 50.4%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자본주의의 生産力編成에 있어 중화학공업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가운데 金屬工業의 생산확대가 현저하였는데 이는 193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특징적인 점이었다. 금속공업의 구성비는 1931~1936년에 9.4%나 상승하였고 그 중심은 鐵鋼業이었다.

이제 중화학공업의 발전과정을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鐵鋼業의 경우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많은 철강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졌다.<sup>6)</sup> 그 대처방안으로 1932년 6월에 關稅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제1차대전 이후 오랜 기간의 현안이었던 銑鐵關稅도 톤당 1엔 66전에서 6엔으로 인상되어 銑鐵獎勵金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제 조치는 일본내 철강업에 대해 상당한 보호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선철관세는 資本救濟關稅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

<표 4> 工業生産의 重化學工業化率

(단위: 100만 엔, %)

연 도	化學(A)	金屬(B)	機 械(C)	A + B + C	兵 器
1928	960(13.3)	658(8.2)	594(8.2)	2,212(30.7)	
1929	1,044(13.5)	739(9.5)	711(9.2)	2,459(32.2)	
1930	909(15.3)	568(9.6)	629(10.6)	2,105(35.5)	
1931	822(15.9)	479(9.3)	456(8.8)	1,757(34.1)	58
1932	946(15.8)	639(10.7)	534(8.9)	2,183(35.8)	162
1933	1,293(16.5)	950(12.1)	821(10.4)	3,063(39.0)	90
1934	1,483(15.8)	1,580(16.9)	1,081(11.5)	4,145(44.2)	151
1935	1,815(16.8)	1,991(18.4)	1,359(12.6)	5,165(47.8)	213
1936	2,112(17.3)	2,331(19.1)	1,600(13.0)	6,043(49.3)	262
1937	2,901(17.8)	3,727(22.8)	3,336(20.4)	9,964(61.0)	426

자료: 橋本壽朗 [1], p. 301. 原資料는 通産産業省 『工業統計50年史 1』, 兵器生産은 原朗 「戰時統制經濟의 開始」(『岩波講座 日本歷史』 20권), p. 247. 병기는 民間生産分.

5) 橋本壽朗 [1], pp. 301~302.

6) 安井國雄 [9], p. 88.

러나 자본구제관세라고 하여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관세가 인상되었어도 철강회사 특히 製鐵會社の 어려움은 계속되었는데 선철관세를 더 이상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만약 더 올리면 製鋼會社들이 압박을 받고 屑鐵(주로 미국에서)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일본제철업의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934년 日本製鐵이 성립되었다. 일본제철의 성립은 國家資本인 八幡製鐵所를 중심으로 합동하고<sup>7)</sup> 설비의 신설과 移設 등으로 산업구조의 재편을 도모하고 생산의 합리적·효과적 조직화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화학공업이 급진전되는 가운데 철강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1934·1935년에는 日本鋼管을 선두로 하여 民間鐵鋼會社の 용광로 건설신청이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일본제철의 용광로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가는 '日鐵中心主義' 정책을 취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제대립이 격화되는 중에 철강업에 대한 군사적 요청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철중심주의'가 택하여졌다. 이 정책을 택한 이유는 일본제철의 확충계획으로 철강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규모적인 일본제철의 용광로를 인가하고 이를 기점으로 합리적·효율적인 대규모생산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日鐵成立의 배경에는 일본제철업의 合理化達成이라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軍事的 意味도 존재하였다.<sup>8)</sup>

세계대공황 이후 일본의 선철생산은 1930년의 116만 톤에서 1936년에는 200만 톤으로 증가하고 鋼材生産은 같은 기간에 192만 톤에서 45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강재생산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그것은 수입선철·설철에 의존한 발전이었다. 일본철강업의 취약점은 이 같은 원료의 높은 해외의존도였으며 이는 철강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造船業은 세계대공황 이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합동에 의한 설비의 축소등이 고려되었지만, 海運市場과 깊이 결합되어 있던 조선업은 정부의 뒷받침을 기반으로 해운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선수요를 창출하여 가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중고선박을 해체하여 새 선박을 만드는 船舶改善助成施設이었다. 제1차 선박조성시설의 내용은 1932년 10월 이래 2년 반 동안에 解體船 총 40만 톤, 代船建造 총 20만 톤, 정부조성금 1,100만 엔, 총 1톤당 전조조성금은 평균 50엔, 특별조성금 5엔이었다. 선박조성시설은 이후에도 제2차(1935년 11월부터), 제3차(1936년 6월부터)로 실시되었다.

硫安工業은 輸出入許可制에 의해 보호되었지만 平價切下로 수입이 억제되어 그 발전은 더욱 촉진되었다. 이 시기 住友肥料製造所, 昭和電工(이상 1931년), 三池窒

7) 木口善康 [4], p. 75.

8) 奈倉文二 [2], p. 152.



素工業(1932년), 東洋高壓工業(1933년), 矢作工業, 宇部窒素(1934년)가 차례로 암모니아合成分野에 진출하였다. 유안의 생산은 공황하에서도 감소하지 않았다. 1931년 국내생산 39만 톤, 수입 22만 톤으로 국내생산이 수입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1936년에는 국내생산 88만 톤, 수입 31만 톤, 수출 18만 톤으로 상당한 양을 수출하게 되었다.

電氣機械工業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重電氣의 경우 생산액은 1931년 6,814만 엔이었지만 1937년에는 2억 635만 엔이 되었다. 또 輕電氣부문의 생산도 증가하였다. 주요 기업의 경우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芝浦製作所の 종업원은 1931년에 2,800명이었지만 1937년에는 8,800명이 되었다. 日立製作所の 종업원은 1931년에 4,000명에서 1936년에는 1만 8,000명으로 증가하였다.<sup>9)</sup>

産業機械工業도 크게 발전하였다. 1930년대에는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제품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發電用原動機, 펌프, 運搬機械, 鑛山機械, 建設機械 등이었다. 또 기술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기술도입과 외국기계의 모방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단순한 모방에서 이제는 일본공업의 실상에 적합한 개량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工作機械工業에서는 수입이 그리 간단히 축소되지 않았다.<sup>10)</sup> 1936년에는 국내생산 3,000만 엔, 수입 1,500만 엔까지 되었지만 高密度, 高能率의 공작기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에너지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石炭의 出炭量은 1920년대 말 3,000만 톤 수준에서 1931년에는 2,800만 톤으로 떨어졌지만 1936년에는 4,100만 톤에 달하고 1939년에는 5,000만 톤 수준에 달하였다. 그 배경에는 철강, 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의 수요증가가 있었다. 石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原油와 製品의 수입수량은 1931년의 228만 킬에서 451만 킬로 증가하였다. 특히 工業用重油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sup>11)</sup>

1930년대 전반에 중화학공업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그 후에도 중화학공업화는 진전되었지만, 이는 주로 軍事的 요청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었다.

중화학공업화가 군수생산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표 5>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표는 광공업(전력 포함)에서의 部門別生産額順位の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1937년에서 1941년에 걸쳐 直接的 兵器生産部門의 지위가 상승하고 1942년에는 육해군공창이 2위, 항공기가 3위, 銃砲·彈丸·兵器類가 4위, 鋼船이 6위로 상위 6부문 가운데 4부문을 직접적 병기생산부문이 지배하고 있다. 1937년에는 상위 15개 부문 가운데 鋼船, 육해군공창의 두 부문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 순위도 7, 8위였던 것과 대비하여 보면 이 기간중의 중화학공업화가 군수생산에 의해서 주도되

9) 安井國雄 [9], p. 93.

10) 澤井實 [19], pp. 37~38.

11) 有澤廣巳 監修, 安藤良雄 外編 [11], p. 194.

〈표 5〉 鐵工業에서의 部門別生産額順位

(단위 : 1,000엔)

	1937년			1941년			1942년	
①	鐵鋼	1,644,566	→	鐵鋼	2,245,660	→	鐵鋼	2,626,512
②	綿絲	1,053,807	↘	銃砲·彈丸·兵器類	1,979,953	↘	陸海軍工廠	2,294,100
③	廣幅綿織物	734,542	↘	陸海軍工廠	1,544,100	↘	航空機	1,930,400
④	製絲	510,366	↘	石炭	1,135,650	↘	銃砲·彈丸·兵器類	1,915,242
⑤	工業製品	504,610	↘	航空機	1,060,500	↘	石炭	1,077,769
⑥	石炭	378,873	↘	製絲	772,069	↘	船舶	858,377
⑦	船舶	357,524	↘	工業製品	762,708	↘	工業製品	785,169
⑧	陸海軍工廠	355,200	↘	船舶	687,922	↘	特殊鋼	753,170
⑨	毛絲	334,835	↘	電氣機械	614,784	↘	電氣機械	633,292
⑩	人絹絲	332,358	↘	製材	608,881	↘	醫藥·賣藥·同類似品	630,800
⑪	紙	326,002	↘	綿絲	515,317	↘	製絲	590,970
⑫	清酒	316,820	↘	紙	502,725	↘	製材	551,600
⑬	電力	315,000	↘	特殊鋼	440,780	↘	鐵鑛	502,532
⑭	印刷物	258,519	↘	醫藥·賣藥·同類似品	434,300	↘	紙	477,328
⑮	毛織物	219,397	↘	金屬工作機械	404,307	→	金屬工作機械	449,442

자료 : 山崎廣明 [5]. p. 219. 原資料는 「工業統計表」, 「本邦産業の構造」, 南亮進, 「電力と鐵道」, 篠原三代平, 「鐵工業」, 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 *Japanese War Production Industries*.

주 : → 표시는 순위의 변화방향을 나타냄. ↘ 표시는 16위에서 15위 이내로의 진출, ↘ 표시는 15위 이내에서 16위 이하로의 저하를 나타냄.

었다는 것이 명백하다.<sup>12)</sup>

이상에서 본 것처럼 1930년대 중반에 일본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이 시기 중화학공업의 생산력수준은 어디까지나 '在來型重化學工業(제1차대전 전의 유럽형)'수준이었고 당시 첨단인 '耐久消費財量產型重化學工業'에 비해서는 뒤떨어진 것이었다. 그 때문에 생산력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 유지를 위해서는 불력경제권의 강화 곧 閉鎖的 '帝國經濟圈'의 확장과 이를 위한 군사력의 정비·확충이 불가피하였다.<sup>13)</sup>

#### IV. 經濟統制의 成立과 強化

1930년대 후반 軍需生産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이 발전하였지만 그것이 경제논리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없었다. 상업서비스업의 동향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처럼 전시체제의 강화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은 군부에 의해 不要不急의 것으로 간주되어 희생되고 주요 물자, 노동력 모두 군수생산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다. 이제 일본경제에서는 經濟外的인 힘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하였다.<sup>14)</sup>

1937년 중일전쟁의 시작으로 경제통제는 본격화되었다. 中村隆英은 전시경제통제가 시작된 동기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sup>15)</sup> 첫째는 現實의 要請이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하에서 긴급하고 또 누구에게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政策目標가 존재할 경우 정책당국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하에서의 좁은 선택 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실현을 서두르게 된다. 그것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1937년 초의 물가등귀와 그에 따른 국제수지의 적자에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때 중국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거액의 전비와 수입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대책은 전면적인 경제의 직접통제 외에는 없었다.

둘째로 이데올로기 내지 理想이다.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불만이 존재하고 그 개선의 필요가 제창되는 경우이다. 당시에는 資本主義的 自由 經濟體制의 모순 내지 停滯에 대한 비판인식이 팽배하고 있었고 그 대책으로서 경제의 계획화가 주창되었다. 물론 그러한 논리의 기초에는 맑스주의, 국가사회주의, 이탈리아와 독일을 모방하려는 혁신우익의 議論, 군부의 國家總動員思想, 소련의

12) 山崎廣明 [5], p. 219.

13) 伊藤正直 [12], p. 145.

14) 朝日新聞經濟部 編 [14], p. 332.

15) 中村隆英 [18], pp. 2~3.

5개년계획의 성공에서 배우려고 하는 관료와 군인의 사상 등 천차만별이었고, 구체적인 실행수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 經濟人이 공개적으로 계획화와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안을 제시한 것<sup>16)</sup>은 이러한 사상이 얼마나 일반화되었는가는 보여 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한 제 요인에 의해 경제통제는 실시되어 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현실적 요청이 더욱 중요하였던 시기와 이데올로기적 政爭이 전개된 시기가 있었다. 1937년 초부터 9월 경까지는 전자의 예이고, 전시체제가 일단 정비된 1937년 말부터 1938년 초까지는 후자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37년 9월 국내외의 급박한 제 상황 속에서 임시의회에서 대규모의 統制立法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戰時統制三法’이라 불리는 臨時資金調整法, 輸出入品等臨時措置法, 軍需工業動員法의 通用法이 성립하여 그 뒤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임시자금조정법은 설비자금의 통제를 목표로 각종의 투자가운데 군수산업으로의 자금공급은 승인하지만, 不要不急産業으로의 자금공급은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이로써 民需産業의 투자에 따르는 설비와 원재료의 수입증대를 방지하고 국제수지의 파탄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산업을 군수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甲類, 섬유산업과 상업처럼 군수와 관련이 있는 것은 丙類, 그 중간을 乙類로 분류하여 甲類는 無條件認可, 丙類는 전면 금지한다는 기준하에서 통제를 진전시켰다.<sup>17)</sup> 수출입품등 임시조치법은 수출입품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금지조치와 수출입과 관련이 있는 모든 물자에 대해서 그 제조·배급·양도·사용·소비에 대한 명령을 가능케 함으로써 무역뿐만 아니라 물자통제 전반의 근거법규가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0월에 臨時輸出入許可規則, 鐵鋼工作物築造許可制, 11월에 銅使用制限規則 등 각종의 통제법령이 차례로 공포되었다. 군수공업동원법의 적용법은 1918년에 제정된 군수공업동원법을 중일전쟁에 적용한다는 법이었기 때문에 공장·광산 기타의 설비를 군부가 관리·사용·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수입물자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을 희생하여 군수생산에 집중하여도 전쟁을 계속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군수물자는 바닥나기 시작하고 더 한층의 철저한 경제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7년 10월에는 생산력확충계획의 입안을 담당하였던 企劃廳과 국가총동원업무를 주관하였던 資源局이 합병하여 企劃院이 설치되었다.

기획원의 임무는 긴급한 전시경제정책의 입안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物資動

16) 예를 들어, 日華生命社長인 河合良成의 『國家改造の原理及其實行—主として經濟的觀察—』, 日本評論社, 1934를 들 수 있다.

17) 有澤廣巳 監修, 安藤良雄 外編 [11], pp. 207~208.

<표 6> 物動計劃輸入一覽表(주요 품목)

(단위: 100만 엔)

	1938	1938 개정	1939 1~3월	1939	1940	1940 제3半期	1940 제4半期	1941 제1半期	1941
鐵鋼	557.1	442.3	390.4	497.2	469.1	259.6	270.4	133.2	54.2
非鐵	293.9	300.4	351.6	347.9	284.4	187.2	256.4	203.6	98.9
纖維·紙	853.9	586.7	563.9	497.5	770.1	422.8	432.8	427.2	345.9*
燃料	524.8	417.0	312.0	282.5	229.2	204.0	351.2	301.6	112.3
食糧	43.9	34.3	22.3	23.9	23.9	46.0	8.0	55.6	33.3
計**	3,056.9	2,554.3	2,230.3	2,395.0	2,395.0	1,614.0	1,846.4	1,600.0	787.6

자료: 中村隆英 [16], p. 48.

주: 1~3월분 및 4半期계획에 대해서는 4배하여 年率로 함. 수치는 모두 原計數로 계산한 것을 四捨五入함.

\*는 皮革, 고무, 木材를 포함.

\*\*의 계는 표에 있는 것 외에 화학, 비료, 기계 기타의 물자를 포함한 총계.

員計劃의 작성이었다. 경제통제의 전개서열은 우선 긴급불가결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파급하여 갔다.<sup>18)</sup> 우선 당시의 국제수지위기에 대처하여 귀중한 외화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1937년 10월부터 12월까지 外貨資金配分案이 작성되었다. 1938년 이래 작성된 물자동원계획의 최초의 안이 이 배분안이었다. 1938년 1월에 1938년 물자동원계획이 작성되어<sup>19)</sup> 수입력 30억 엔 규모로 계획이 입안되었다(<표 6> 참조).

物資統制의 틀을 정하는 물동계획의 규모는 매년의 수입가능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력의 배분이 가장 중요하였다. 중일전쟁기에는 外貨不足이 가장 결정적인 애로사항으로 등장하여 이 문제가 경제통제의 전개를 크게 제약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民需生産은 철저히 억압되고 軍需生産으로의 교체가 진행되었다. 군수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경공업의 정리가 이루어졌지만 외화획득을 위한 생산만은 계속되고 경공업은 수출산업화함으로써만 존속이 가능하였다.

1938년 4월에 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입에서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생산에 필요한 원료재료·생산수단에서 인간노동력까지 경제의 모든 면에 통제가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 쟁의행위의 중지와 금지, 공장뿐만 아니라 一般家屋의 管理·使用·收用, 언론의 통제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체제가 성립되었다.

국가총동원법과 동시에 電力國家管理에 관한 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오랜기간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던 현안이었는데, 중일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18) 原 朗 [10], p. 75.

19) 中村隆英 [16], p. 47~55.

1938년 電力管理法과 1939년 日本發送電株式會社法으로 일시에 실현되었다.<sup>20)</sup>

이상에서 본 것처럼 중일전쟁을 계기로 한 준전시체제의 성립으로 통제경제가 성립되었지만 전쟁의 확대와 함께 경제의 통제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1938년 5월 近衛內閣의 改編으로 池田成彬이 藏相겸 商相에 취임하여 賀屋·吉野 三原則을 군수총족·물가억제·수출진흥이라는 말로 바꾼 채 그대로 계승하였다. 商工省에는 1938년 5월에 물자통제의 중앙기관으로서 臨時物資調查局을 신설하여 상품별 행정기구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상반기의 수출이 예상외로 부진하자 1938년 물자동원계획은 대폭 축소개정되어 그 때문에 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것이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을 가져오게 한 경제면에서의 사정이었다. 물동계획개정과 함께 綿製品非常管理가 단행되어 純綿의 국내소비는 금지되고 ‘스프’(staple fiber)의 소비가 강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들은 이제 물자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綿이 ‘스프’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金屬供出이 시작되어 금속제품은 木材製品과 陶製品으로 바뀌어 가고 각종의 대용품이 사용되었다.

1938년 7월에는 면제품수출과 원면수입의 綿業個人링크제가 실시되었다. 링크제는 이미 1937년 10월부터 비누와 그 원료에 대해서 행하여졌지만 인견·양모·펄프에 대해서도 상품별링크제가 실시되었다. 8월에는 수입의 허가사무제가 일원화되고 1939년 1월부터는 수출품원재료의 轉用沮止를 위한 수출입특수링크제가 실시되었다. 1938년 5월에 綿絲販賣價格團束規則에 의해 공정가격이 정하여지고 그 이후 물자별의 單行省令에 의한 공정가격 외에 물가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최고표준가격, 7월의 물품판매가격단속규칙에 의한 공정가격 등이 차례로 정하여졌다. 매점·매석·끼워팔기 등이 시작되고 통제망을 벗어난 암거래가 급속히 증대하였다. 이제 경제통제의 강화와 함께 위반의 단속이 필요하게 되어 소위 經濟警察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경찰이라 하여도 새롭게 경제경찰서가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 각 경찰서에 經濟事犯을 진단하는 형사, 순사를 두어 통제위반 특히 암거래를 단속하였다.<sup>21)</sup> 경제경찰의 발족 당시에는 말하자면 통제경제로의 過渡期였기 때문에 단속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주어졌지만 1938년부터는 방침이 변경되어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경제경찰에 적발된 統制違反件數는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938년 7월~10월의 3개월간에 평균 약 9만 4,600건, 11월에 약 11만 건, 12월에는 20만 8,000건이었다. 1939년에 들어서는 매월 12~15만 건의 위반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결국 1938년부터 1939년 말까지 단속된 총인원은 225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자

20) 松元 宏 [7], pp. 111~112.

21) 中村隆英 [16], p. 64.

가 모두 의식적으로 암거래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고, 상당한 부분이 통제경제에 익숙치 못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것이었다. 엄청난 적발건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통제경제로의 移行過程에는 커다란 혼란이 뒤따랐다.

일본은행의 正貨準備에서 3억 엔을 빼내어 外國換基金을 설정하여 수출진흥을 위한 輸入回轉資金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38년부터 외환은행의 외화매입분을 일본은행에 매각하게 함으로써 외환의 日銀集中制가 시작되었다.

1938년 4월에 國民健康保險法과 社會事業法이 공포되고 6월에는 職業紹介所官制가 공포되었다. 물자통제의 강화와 중소기업자의 轉失業對策으로서 1938년 9월 상공성에 轉業對策部가 설치되었다. 1938년 11월 閣議에서는 국가총동원법 6조를 발동하여 勞務統制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제로 등장하였다.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군수생산의 속도를 올려야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939년 1월에 성립한 平沼麒一郎內閣은 국가총동원체제의 강화와 함께 생산력확충과 貿易·物資·資金·勞務·物價統制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력확충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여기서 1938년부터 시작된 4개년계획의 목표연도로서의 1941년은 변경되지 않았다. 1939년도의 물자동원계획은 회계연도에 맞추어 작성이 되고, 曆年으로 작성된 1938년 물동과의 접속을 기하기 위하여 1939년 1월부터 3월 물동이 작성되었다. 물자동원계획에서 보면 이미 물자수급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생산력 확충을 위한 고성능의 기계수입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 代用品의 장려와 폐품회수·소비절약·경비절약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사용제한과 배급통제의 강화가 반복되었다.

利潤統制에 대해서는 재계출신 池田成彬藏相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1939년 4월 會社利益金配當及資金融通令이 나왔다. 이는 10% 이상의 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더 이상의 增配를 제한시키는 동시에<sup>22)</sup> 배당제한의 결과 경영이 방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내용에 대한 간섭권이 결정되고, 또 자본공급감소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興業銀行으로부터 生産力擴充資金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39년 5월에 이르러 1939년 물동계획이 결정되었다. 이것과 동시에 貿易計劃·交通電力動員計劃도 책정되고, 7월에는 資金統制計劃과 勞務動員計劃도 결정되어 이해부터 國家總動員諸計劃의 체계 전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1938년 4월에 商工省 내에 설치되었던 物價委員會는 1939년 3월에 개편확충되었다. 4월 말에 物價統制大綱이 中央物價委員會에서 결정되어 공정가격이 설정되고 원가계산에 기초하여 이윤·임금·운임·家賃地代 등 생산비구성요소의 戰時適正價格設定·수요공급의

조정 등이 이루어져 종합적인 물가대책이 마련되었다.<sup>23)</sup>

1939년 7월에 미국이 美日通商航海條約을 반 년 후에 폐지한다는 것을 통고하여 군수자원의 상당부분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전시경제에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더욱이 1939년 8월 말 獨蘇不可侵條約에 의해 獨伊日三國同盟 체결의 可否를 둘러싼 내각의 논쟁이 거듭되자 平沼內각은 '유럽정세가 複雜怪奇'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다음 총사직하고, 월말에 阿部信行內각이 성립하였다. 이후 일본은 太平洋戰爭하의 통제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 V. 結 論

일본경제는 1931년의 滿州事變과 金輸出再禁止로 자본주의국가 중 가장 일찍이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후 정부의 거액에 달하는 재정지출과 군수수요의 증가를 기반으로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전반기에 이루어진 중화학공업화는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量的으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여도 여전히 경공업을 약간 능가하는 수준이었고, 많은 분야에서 국내자급화가 간신히 달성되는 정도였다. 質的으로 그 생산력은 국제수준에서 한 단계 뒤진 것이었으며 대형·고급기계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최대의 성장률을 나타내 국내자급화를 달성한 철강업이 원료를 美國屑鐵과 印度銑鐵에 의존하여 발전한 결과 銑鋼의 不均衡이 더욱 확대된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産業構造의 對外依存的 斷切性이 재생산되었다. 또 중화학공업화의 비대화는 특수한 소비재라는 성격을 지닌 군수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生産財供給力の 停滯 → 國內生産의 一般的停滯 → 輸出力減退 → 必要物資의 輸入困難이라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中日戰爭이 시작되고 그것이 장기화되자 경제통제가 실시·강화되었다. 전시경제통제의 동기는 국제수지적자하에서 生産力擴充이라는 평범한 수단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 요청의 실행과 자본주의 내지 자유주의경제체제에 대한 비판과 계획화로의 기대였다.

物價統制·物資統制를 강화하고 임금과 이윤도 직접통제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경제통제하에서 군수를 중심으로 자원이 편파적으로 배분되고, 여기에 物資供給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본의 전시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통제가 강화되어도 경제의 생산력은 상승되지 않았고 일본의 전쟁수행능력도 점차 쇠퇴되어 갔다.

23) 原 朗 [10], p. 79.



## ◇ 參考文獻 ◇

1. 橋本壽朗,『大恐慌期の日本資本主義』,東京大學出版會,1984.
2. 奈倉文二,「製鐵合同政策とその歸結」,安藤良雄 編,『兩大戰間期の日本資本主義』,東京大學出版會,1979.
3. 大川一司,『長期經濟統計 1 國民所得』,東洋經濟新報社,1966.
4. 木口善康,「恐慌と戰爭下日本における工業の發展」,山本義彥編著,『近代日本經濟史』,ミネルウヰ書房,1992.
5. 山崎廣明,「戰時下の産業構造と獨占組織」,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ファシズム期の國家と社會 2 戰時經濟』,東京大學出版會,1979.
6. 篠原三代平,『長期經濟統計 10 鑛工業』,東洋經濟新報社,1972.
7. 松元 宏,「戰時國家獨占資本主義への移行」,歷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 編,『日本歷史 10 近代 4』,東京大學出版會,1985.
8. 安藤良雄 編,『近代日本經濟史要覽(第2版)』,東京大學出版會,1979.
9. 安井國雄,「第1次大戰後における重化學工業の展開」,山崎隆三編,『兩大戰間期の日本資本主義』,大月書店,1978.
10. 原 朗,「戰時統制」,中村隆英 編,『日本經濟史 7 「計劃化」と「民主化」』,岩波書店,1989.
11. 有澤廣巳 監修,安藤良雄 編,『昭和經濟史(上)』,日本經濟新聞社,1994.
12. 伊藤正直,「重化學工業」,大石嘉一郎 編,『日本帝國主義史 2 世界大恐慌期』,東京大學出版會,1987.
13. 日本銀行統計局,『明治以降 本邦主要經濟統計』,1966.
14. 朝日新聞經濟部 編,『朝日經濟年史』,1937.
15. 猪瀬直樹監修,山崎博 編,『目擊者が語る昭和史 제2권 昭和恐慌』,新人物往來社,1989.
16. 中村隆英,『日本の經濟統制』,日本經濟新聞社,1974.
17. \_\_\_\_\_,『昭和經濟史』,岩波書店,1986.
18. \_\_\_\_\_,「『準戰時』から『戰時』經濟體制への移行」,近代日本研究會,『年報日本研究 9 戰時 經濟』,山川出版社,1987.
19. 澤井 實,「1930年代の日本工作機械工業」,『土地制度史學』,제97호,1982. 10.
20. 徐廷翼,「日本戰時財政의 研究-高橋財政-」,崔虎鎮博士講壇50周年紀念論文集刊行會,『經濟理論과 韓國經濟』,博英社,1993.